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2007



조성철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협회, 가치와 희망을 실현시키는 디딤돌 될 것”

논어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게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요.

아름다운 사회복지사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구석구석 모르는 곳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나 또한 한사람의 사회복지인으로서 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 가면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점차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는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5대 유망 업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낳은 불평등과 부적응, 차별과 학대 등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해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역할 기대 또한 증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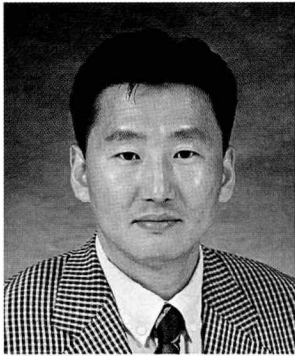
이에 21세기형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해당 분야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기술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함양 하여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이러한 가치와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조직의 운명은 조직원이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협회가 어느 전문가 단체 못지않게 발전 하려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서만 가능 합니다. 작은 오솔길도 자주 다니다 보면 큰 대로가 되듯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이 모여 협회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쉬웠던 병술년을 보내며,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인사

Happy New Year!



최군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복지사 얼굴에 웃음꽃이!”

우선 16만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06년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내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더 나아져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나누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물론 도내 복지현장을 찾아다니며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업무상의 애로점, 협회의 발전방향 및 협회에 바라는 점 등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문제를 꼭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 신년사를 쓰게 될 때에는 새로운 우리들의 바람이 생겨나길 희망합니다.

또 전국 16만 사회복지사들의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2007년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며, 그러다가도 정말로 우리의 하나된 힘이 필요할때는 하나로 뭉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SW